

“제2중양경찰학교 선정 총력” 전북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만전

순창군, 최종 점검... 27~29일 19개 종목 2200여명 선수단 참가

순창군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최종 점검 단계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순창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통합과 화합의 장’이라는 목표 아래, 2,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1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종목으로는 게이트볼, 골볼, 파크골프, 당구, 론볼, 좌식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수영, 육상, 족구, 탁구, 태권도 등 15개의 정식 종목과 한궁, 슨런 2개의 시범 종목, 그리고 플로어킥링, 스포츠스태킹 2개의 전시 종목이 펼쳐진다.

대회는 순창 공설운동장을 주요 경기장으로 하여 군내 여러 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군은 각 종목별 경기장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를 완료했으며,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실제로, 군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18개 분야에 걸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과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회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지역 문화공연과 함께 14개 시군 선수단의 입장, 주요 내빈의 축하, 그리고 인기가스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 체육의 발전은 물론, 우리 순창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순창을 찾아주시는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순창의 아름다움과 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간부회의서 유치 전력 강조... 국회 방문 협력 요청

남원시가 제2중양경찰학교(이하 학교) 유치 1차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최경식 시장(사진)이 “최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최 시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시가 1차 정량평가에서 47개 지자체 중 후보지 3곳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입지 조건과 교통, 문화예술관광자원, 생태경관 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전북자치도, 국회, 정치권, 영호남 지자체와 학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도내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면담을 진행, 남원시의 입지적 강점을 설명하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면서, 현재 충북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2곳 모두 충청권으로 대전 이남 영호남 지역인 남원시에 학교가 들어서는 게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지로 제시된 구 가족유전 자원시험장 부지는 100% 국유지로 토지 보상을 위한 별도 비용 투입이 없어 국가 건축재정 정책에 매우 적합하고,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며, 지리산 비래봉 자락으로 허브밸리, 지역활력타운, 학교복합시설, 고향 유희사업과 연계 개발의

확장성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생과 교직원에게 최상의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임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광주·대주, 순천·완주), 고속철도(KTX·SRT), 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으로 영호남 교통 중심지로 지리산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예술자원, 교육환경이 뛰어난 지역이자 풍수지리적으로 조선시대에 저술된 정감록에 운봉읍이 안전한 명당으로 꼽히는 십승지로 기록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 입지 강점을 토대로 전북자치도, 국회의원, 영호남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 행정력 집중을 통해 학교 최종 대상지로 남원시가 선정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10주년 임실N치즈축제, 볼거리 풍성

10월 3-6일 천만송이 국화꽃·야간경관 조명 등 가을날 추억 선사

임실군이 자랑하는 임실N치즈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10주년을 맞이한 더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치즈축제의 백미인 천만송이가 넘는 가을꽃의 대명사 국화꽃 향연이 펼쳐진다.

해마다 농업기술센터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농가와 협력해 정성껏 재배한 국화꽃 화분이 예년보다 더 많이 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 배치된다.

군은 올해 작년보다 더 늘어난 4만 7000여개의 국화꽃 화분을 치즈축제장과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에 배치, 천상의 국화꽃 경관을 선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드넓은 푸른 잔디 언덕과 축제장 일대에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구절초와 코스모스 등 계절꽃과 가을 단풍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축제 기간에는 치즈테마파크 유가족장에서 보다 다양하고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신선한 원유를 얻기 위한 젖소 우유 짜기 체험을 비롯해, 신앙, 미니피그, 말, 토끼, 관상용 닭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구경하면서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하다.

유람형 치즈테마파크와 어우러진 유람형 잠미원도 화려한 경관을 선사한다. 이색적인 야간 경관조명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올해 축제부터는 축제장 주 출입구도 잠미원 입구로 변경됐다.

잠미원 입구를 들어서면 다양한 색깔을 뽐내는 잠미 공원과 잠미 터널을 배경으로 국화를 활용한 대형 젓소 조형물과 현악국이 함께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밤에는 화려한 야간경관 조명이 축제장을 환하게 밝혀줄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26년에 치즈와 함께하는 잠미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지난 2015년 첫 치즈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한 자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임실군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 더욱 특별해지고 풍성해진 축제장에 오셔서 가을날의 멋진 추억들,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문화행사 진행

남원시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남원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긴 더위에 지쳐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위한 격려의 자리로, 어르신들이 신명 나게 즐길 수 있는 남원시립국악단, 가수 강혜원 등의 축하 무대와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24일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 한 분은 “평소 국악, 가수의 공연을 현장에서 관람할 일이 많지 않은데, 이번 문화행사를 통해 마음 놓고 신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며, “내년 문화 활동도 벌써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임점숙 노인장애인교장은 “이번 참여자 문화 행사를 통해 참여자의 삶에 활력이 되길 바라며, 남은 기간 보람과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어



르신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본격 시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는 지역특화 임대형 ECO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스마트팜 확대보급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경식 남원시장,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대해 상호협력 협의 및 청년농 모집, 설계·시공·감리시 상호 유기적인 협의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남원시는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농생명산업지구에 선정



되어 47.1ha 전국 최대 규모의 ECO 스마트팜을 스마트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 스마트팜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관광·체험이 어우러진 미래농업 복합단지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전국 최고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임실군, 국가암검진 사업 연중 추진

임실군이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경제적 부담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국가암검진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4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폐암(54~74세 고위험군) △대장암(50세 이상/매년)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도 검진비 일부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병·의원에서 검진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권 보건지원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신규공무원 36명 시령장 수여

순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3회 공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6명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순창군으로 신규 발령 받은 공무원은 8급 1개 직렬 3명(간호 3), 9급 10개 직렬 33명(행정 11, 세무 1, 전산 1, 사회복지 2, 농업 3, 녹지 2, 보건 3, 시설 10)으로 총 36명이다.

수여식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국·실·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최영일 군수는 축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직자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면서 “순창군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